

# 司牧研究

제46집 (2021/여름)

교회법 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 발 간 사

코로나는 많은 관계의 단절을 야기시켰지만 소통의 또 다른 차원을 개발하게 하기도 했으며, 또한 인간의 한없는 욕심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얼마나 훼손시켰는지를 깊이 성찰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형제애를 보여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아직 이 세상은 사랑의 온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머물고 재물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코로나상황은 더욱 힘겨운 조건입니다. 세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모든 형제들」 회칙에서 말씀하신 “열린 형제애” 곧 물리적 근접성을 뛰어넘어 출생지나 거주지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호는 일반적으로 교회법편이 중심이기에 한 편의 교회법 관련 논문과 스페인외방선교회의 지침서와 회헌에 대한 특별기고문이 있으며, 두 편의 번역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원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인 김의태 신부는 2016년 5월 국제수도자 장상 연합회 회의에서 한 수녀가 프란치스코 교황께 행한 질문인 “여성 부제직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과 교회 역사의 맥락에서 여성 부제직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여성 부제직과 멕시코 San Cristobal de las Casas 교구의 사례를 통해서 가능성과 문제를 고찰했습니다. 특히 종신부제서품식 때 부제품을 받은 이들의 아내들에게도 안수를 행한 행위는 남용이었음을 경신성사성은 분명히 하였는

데, 그 이유는 혹시나 이 안수를 통해 ‘여성 부제직’이라고 불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서 몇몇 수녀원장들이 부제로 서품된 예가 있었음을 전해주며, 여성 카르투스오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수대와 영대 수여식을 통한 전례적 특권에 대해 소개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교회내에서 점차 증대되는 전례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연구라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교회법 교수로 봉직한 이경상 신부는 1989년 작성된 스페인 외방선교회(IEME)의 회헌과 지침서를 소개해줍니다. 이 선교회는 헤라르도 비요타(1839-1906) 사제의 발의에 의해 1899년 10월 1일 부르고스에 해외포교 신학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새 교회법전 반포와 1984년 포교성성의 선언에 발맞춰 사도생활단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헌과 지침서를 인준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파리와방선교회, 메리놀외방선교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그 밖의 여러 수도회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한국외방선교회(1975년 설립)를 필두로 여러 수도회와 교구들이 해외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탈바꿈한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현 시대에 부응한 스페인 외방선교회의 회헌과 지침서는 선교의 역사가 짧은 한국의 여러 선교회와 수녀회, 교구들에게 선교 사명을 이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소속으로 수원교구 법원 성사보호관인 이규용 신부는 그레고리안 대학교 교회법 교수인 유지 스가와라의 ‘수도회 회원들의 직권자’라는 글을 소개해줍니다. 교구에서는 직권자라고 하면 바로 ‘교구장 주교’임을 인지하지만 수도회에서의 직권자는 보통 ‘장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구 내의 수도회에 대한 교구장 주교의 권한과 수도회 장상의 권한은 어떻게 구

별되고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법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구 설립 성직자회와 성좌 설립 평신도회 그리고 평신도 수도회의 성직자들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수도회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좋은 안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례학 교수인 저는 서품 기도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전문가인 주세페 페라로 예수회 신부의 「부제, 사제, 주교 서품 기도」라는 책의 일부인 ‘주교 서품 기도에서 성령 청원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삼위일체적 배경에서 성령의 역할은 다른 품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에게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서 기인한 “*Spiritus principalem*”은 시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교회의 목자의 성서적이고 거룩한 의미에서 임금이며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성령의 역할을 잘 말해주는 용어라 하겠습니다.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성령’은 주교가 먼저 성령에 다스려지고 이끌려야 함을 말하는 듯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 년 넘게 월례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가 오면 학문 연구를 통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목 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2021년 6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윤종식 신부



## 司牧研究 제46집 2021 여름

## 차 례

발간사/ 3

윤종식

## 〔특집〕교회법

가톨릭교회 내 여성 부제직의 가능성에 대한 소고/ 9

김의태

스페인 외방선교회(회현), 스페인 외방선교회(지침서)/ 38

이경상 옮김

수도회 회원들의 직권자/ 109

유지 스가와라, 이규용 옮김

## 〔번역〕

주교 서품 기도에서 ‘성령 청원 부분’/ 134

쥬세페 페라로, 윤종식 옮김

## 〔부록〕/ 169

Ⅰ.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171

Ⅱ.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177

Ⅲ.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180

Ⅳ.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182

Ⅴ.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184

司牧研究 총목차(1994-2020 겨울)/ 186

## Contents

---

Editorial Preface/ 3

*Rev. Yun, Jongsik, S.L.D.*

[Special Issue] Canon Law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female deacon in the Catholic Church/ 9

*Rev. Kim, Euitae, J.C.D.*

Spanish Institute of Foreign Missions (Constitutions),

Spanish Institute of Foreign Missions (Directory)/ 38

*tr. by Rev. Lee, Kyungsang, J.C.D.*

The Ordinaries for Members of Religious Institutes/ 109

*Rev. Yuji Sugawara*

*tr. by Rev. Lee, Gyuyong, J.C.L.*

[Translation]

*Epiclesis* in the Episcopal Ordination Prayer/ 134

*Giuseppe Ferraro*

*tr. by Rev. Yun, Jongsik, S.L.D.*

[Appendixes]/ 169